실속 재테크

휴가철 카드 100% 활용법

물놀이 시설엔 현금보다 '카드'

장마가 끝나면 본격적인 여름 휴가가 시작되지만 주머니 사정 때문에 휴가계획조차 세우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신용카드를 잘 만 활용하면 알뜰 바캉스를 보낼 수 있다. 은행 등 신용카드사들이 물놀이 시설 할인과 자동차 정비 서비스는 물론 여행전용 카드를 내놓고 포인트 적립을 통해 휴가비를 되돌려 주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광은VISA 등 최대 40% 할인

여행전용 카드 쓰면 연회비 충분히 뽑아

◇물놀이 시설 최대 40% 할인= 대부분의 카드사가 10~20곳의 물놀이 공원을 20~40%가량 할인해 준다. 입장할 때 그 회사 카드로 결제하기만 하면 된다.

광주·전남지역 물놀이 시설에서는 광주은행 VISA카드가 가장 혜택이 많다. 광주VISA카드로 결제할 경우 나주의 중흥골드스파는 본인 30%와 동반 3인 20%씩 할인된다. 화순 금호리조트 아쿠아나는 본인 포함해 4명까지 20% 할인되고, 여수의 디오션리조트는 본인과 동반 1인까지 30% 절약할 수 있다.

현대카드는 8월 15일까지 전국 15개 물놀이 공원에서 최고 40%까지 할인해 준다. 중흥골드스파는 본인 30%, 동반 3인 20%, 금호리조트는 본인포함 2명까지 30%, 디오션리조트는 본인에 한해 30% 할인해 준다.

KB카드는 7월 15일부터 8월 20일까지 금호리조트, 오션월드 등 전국 13개 물놀이 공원에서 인터넷 예약·결제시 20~30% 할인해 주며, 결제금액의 5%는 현금으로 돌려준다.

신한카드는 7~8월에 디오션리조트, 아쿠아월드, 덕산스파캐슬 등 전국 20개 물놀이공원에서 동반자 포함 최고 40%까지 할인해 주는 '핫(hot)핫(hot)하(夏)' 이벤트를 연다.

◇여행전용 카드로 연회비 절약 =여행에 앞서 목적에 맞는 '여행전용 카드'를 선택하면 연회비를 충분히 뽑을 수 있다.

하나투어 KB카드는 패밀리레스토랑·커피전문점에서 10% 등 가맹점 결제액에 따라 포인트를 적립해 주는 카드. 적립한 포인트로 하나투어의 모든 여행상품과 국내외 항공권을 구매할 수 있다. 특히 최대 70만원까지 먼저 할인받고 나중에 포인트로 갚아나가는 '하나투어 세이브(Save)' 서비스를 활용하면 신규 발급받아도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BC 중국통 카드는 중국 여행시 항공권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이 있다. 홈페이지 예약시 아시아나항공 7%, 대한항공 5%를 할인해 주며 카드 사용액에 따라 마일리지도 적립해 준다. 중국 내 모든 ATM(현금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할 수 있고 해외 사용에 따른 추가 수수료가 없어서 인기다.

이밖에 광주은행은 자사 카드고객이 카센터 체인점인 '오토 오아시스'에서 에어컨가스를 교체하면 50%, 차량정비시에는 10%를 할인해준다. 또 영화관을 찾는 바캉스족을 위해 이달부터 유스퀘어 CGV점, 씨너스 전대점, 메가박스에서 1천500원을 할인해주고 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카드사별 물놀이시설 할인률

회사명	내용
광주VISA카드	중흥골드스파 본인 30%, 동반 3명 20% 금호 아쿠아나 본인포함 4명 20% 디오션리조트 본인·동반 1명 30%
현대카드	중흥골드스파 본인 30%, 동반 3명 20% 금호 아쿠아나 본인포함 2명 30% 디오션리조트 본인 30%
삼성카드	중흥골드스파 본인·동반 1명 30%
신한카드	금호 아쿠아나, 디오션리조트 본인·동반 1명 30%

은행권, 서민대출 채권발행 건의

보증·세제 혜택 부여로 대출 활성화 유도

은행권이 서민지원용 채권 발행을 통해 저신용자 소액신용대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14일 금융위원회와 은행업계에 따르면 전날 진동수 금융위원장이 주재한 은행장 간담회에서 신용보증기관의 보증과 세제지원 혜택을 부여한 서민대출채권(가칭)을 금융회사가 발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정책건의가 있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은행장은 "서민대출은 연체율이 높고 은행 수익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대출을 늘리기가 쉽지 않다"면서 "별도의 서민대출용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신보 등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을 붙여 서민대출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은행장은 "은행이나 저축은행이 서민대출채권을 발행하면 조달비용이 떨어져 서민대출을 활성화할 수 있다"며 "이자소득세 면제 등 세제혜택과 보증을 붙이는 조건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방안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민대출용 채권은 높은 위험부담 때문에 투자자들이 외면할 수 있는데 보증기관이 보증하고 세제혜택을 부여하면 많은 투자자가 이 채권에 투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진 위원장도 서민금융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이 같은 은행권의 정책건의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광주은행 수완지점 개점 광주은행 수완지점 개점식이 14일 오후 5시 광주시 광산구 수완동에서 송기진 광주은행장과 강박원 광주시의회 의장, 전갑길 광산구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광주은행의 136번째 점포로 문을 연 수완지점은 호남 최대의 택지지구인 수완지구에서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광주은행 제공〉

20대 교통사고 사망자 보험금

1인당 1억5,820만원

지난해 20대 교통사고 사망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이 1인당 1억5천820만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2008년 4월~2009년 3월까지 1년간 자동차 보험 대인배상 자료를 분석한 결과 피해자 1인당 보험금은 사망자는 9천3만원, 부상자는 182만원이었다.

연령별 사망 보험금은 20세 이하는 1억4천61만원, 21~30세는 1억5천820만원, 31~40세는 1억5천38만원, 41~50세는 1억1천820만원, 51~60세 8천45만원, 61세 이상 5천205만원이었다.

성별로는 남성이 1인당 9천567만원, 여성이 7천952만원이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상실수익액 등을 반영한 금액이기 때문에 통상 경제 활동을 갓 시작하는 21~30세를 정점으로 더 어리거나 나이가 들수록 보험금은 줄었다"며 "사망 피해자들의 평균 과실율이 30%이므로 과실이 적으면 보험금을 더 많이 받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광주·전남 훼손된 돈

4,281만원

상반기 교환액 크게 줄어

올 상반기에 광주·전남지역에서 불에 타거나 심하게 훼손돼 바꿔간 돈의 건수와 액수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발표한 '2009년 상반기 중 소손권(燒損券) 교환 현황'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에서 심하게 훼손돼 새 돈으로 바꿔준 돈의 규모는 총 270건 4천281만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건수는 39.1%(173건), 금액은 6.6%(301만원) 각각 감소한 것이다.

사유별로는 불에 타 훼손된 지폐가 2천758만원으로 전체 소손권 교환 금액의 64.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습기와 곰팡이에 의해 훼손된 경우 835만원(19.5%), 장판 밑에 보관해 훼손된 경우 402만원(9.4%) 등의 순이었다.

또 1만원권 교환 실적은 4천14장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9.6% 감소했으며 전체 교환 실적 가운데 장수를 기준으로 1만원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65.7%로 나타났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